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2~11/18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상욱,현안	위앙북스
2	산사는 깊다	지안스님	불광출판사
3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4	AWAKENING(깨달음 내는 뜨기)	VEN.POMNYUN SUNIM	정토
5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우학	좋은인연
6	어울리면 열리는 길	도영	효림
7	지장경 연명지장경	청운	꿈의날개
8	반야심경 강의	광덕	불광출판사
9	반야심경과 선공부	법상	무한
10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2	진짜나를찾아라	샘터사	법정
3	스스로행복하라	샘터사	법정
4	다시여행을시작하는그대에게	김영사	덕조 글,사진
5	법구경	담마디빠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6	앙굿따라니까야(5)	초기불전연구원	대림 스님 옮김
7	불멸(1)	지혜의눈	이각 지음
8	부처님의당부	사유수	비구 보디/등현 감수
9	불교이후	운주사	스티븐 배철러
10	붓다의가르침	맑은소리맑은나라	월폴라 라훌라(Walpola Rahula)

"붓다는 믿으라 하지 않았다"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깨기

고광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4000원

'절집 숨은 고수'의 40년 탐구

귀의·윤회 등 새롭게 풀이

"불교는 인생 사용 설명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당연하게도,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깨달음의 길, 즉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종교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떨까?

"삼매에 빠져야 깨달을 수 있다." "괴로움은 운명이다." "해탈은 죽은 뒤에야 가능하다."

〈불교 도장 깨기〉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경전에 근거해 하나씩 깨부수는 책이다.

먼저 저자의 이력에 눈길이 간다. 고광 스님은 고등학교 재학 중 법주사로 출가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인생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미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17년간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그간의 수행이 '분노와 탐욕에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전에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스님은 빨리어 니까야와 한역 〈아함경〉을 대조하며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 붓다의 깨달음을 '믿음이 아닌 이해의 길'로 복원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불광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어원으로 본 불교'를 주제로 강의했고, 이를 다듬어 엮어 낸 책이 〈불교 도장 깨기〉다.

"붓다는 믿으라 한 적이 없다. 확인하라, 검증하라, 스스로 알아차리라 했다."

고광 스님은 '불교'에서 추상적 믿음과 신비한 체험을 걷어 내고,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설명서'로 읽어 낸다. 8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고, 12연기는 괴로움 소멸의 설계도이며, 4념처는 몸·느낌·마음·법을 관찰하는 현실적 도구로 풀이하는 식이다.



고광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책은 불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귀의(歸依)'의 정확한 뜻을 새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돌아가 귀의한다'고 번역하는 이 단어를 스님은 '붓다에게 투항하고 의지한다, 순종하며 의지한다'로 해석했다.

'붓다'라는 단어에 대해선 "중생이 깨달아 알았을 때 그를 붓다라고 부르지, 붓다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일체가 법'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면 그를 우리는 붓다라고 부르고,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중생이라고 부를 뿐"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서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으며, 지혜를 얻는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 대신 "계율도 배워야 하고, 선정도 배워야 하고, 지혜도 배워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8정도의 정견(正見)은 '보는 법이 달라져야 길이 열린다'는 말로, 정사유(正思惟)는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는 표현으로, 정어(正語)는 '말이 곧 현실을 만든다'는 문장으로 정리함으로써 '붓다의 말'을 곧장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익숙한 불교 용어를 하나하나 다시 짚으며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임을 역설하는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배워서 귀의한다면 오래지 않아 붓다와 같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비, 개인의 덕목에서 공동체의 윤리로



자비의 길을 찾아서

방영준 지음

인북스 / 1만8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는 언제나 깨달음과 더불어 언급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비는 종종 개인적 미덕의 차원에 그친다. 〈자비의 길을 찾아서〉는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 자비를 현대 사회의 '실천 윤리'로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자비를 연민이나 시혜적 사랑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무재칠시(無財七施)에서 출발하되, 연기(緣起)의 원리에 기초한 '상호윤리'의 개념으로 재정립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비를 '타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저자는 이러한 상호윤리의 개념을 통해 자비가 지향하는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자비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는 인류 공동의 윤리이며, 나아가 현 시대가 직면한 생태 위기와 사회적 분열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이 던지는 또 하나의 핵심 화두는 '깨달음과 자비의 관계'다. 전통적으로 깨달음은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자비는 그 결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 도식을 뒤집는다. 자비의 실천이 곧 깨달음의 과정이며, 자비를 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교 수행이 머리로 '깨닫는'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옮겨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깨달음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깨달음은 생명을 잃는다"는 저자는 자비를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의 길'로 제시한다.

'깨달음의 종교'에서 '자비의 종교'로. 그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상호윤리'의 실천이 있고, 한국불교의 미래는 그 자비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는 성신여대 교수를 정년 퇴임한 후 '행복하고 바른 사회'를 화두로 연구·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일체의 만남' 그린 자전적 서사



시절 인연

이갑숙 지음

퍼플

1만6000원

2017년 제2회 법계문학상 수상자인 이갑숙 작가의 산문집이다. 장편 소설 〈꺼지기 쉬운 빛〉과 〈눈부처〉를 통해 구도적 여행을 펼친 작가는 이번 산문집에서 가족 여행,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일상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전작들의 모티브가 된 일화도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시절 인연이란 내 안의 우는 아이를 달래 주기 위해 어느 날 문득 다가온 부처님의 법이요, 살아가며 다가온 소소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다.

이갑숙 작가는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청계사 순례단원으로 8여 년 동안 국내외 선원과 사찰을 참배했고 뒤늦게 글쓰기를 시작했다.

빠알리어 원문으로 읽는 〈법구경〉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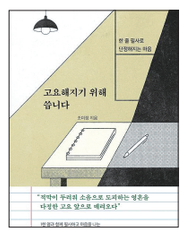
식카와띠 위뿔라냐니 옮김

담마디빠

7000원

사단법인 담마디빠선원이 펴낸 〈법구경〉 번역서다. 역자는 "〈법구경〉은 붓다께서 피할 수 없는 무상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확실한 행복을 향해 가라고 설법하신 게송 모음"이라며 "게송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했다"고 밝혔다. 빠알리어 원전을 싣고, 문장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빠알리어 단어의 특성을 반영해 미주로 여러 뜻을 보충 설명했다. 역자는 2004년 미얀마 빠디따라마에서 식카와띠로 출가해 17년간 공부했고 현재 대구 담마디빠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역서로 〈난다말라비왐사 큰스님 가르침〉, 〈행복을 찾아서〉, 〈참사람의 길〉이 있다.

'필사 덕후'가 엮은 고요한 문장들



고요해지기 위해 씁니다

조미정 지음

해냄

2만원

온라인 필사 모임 '재밌어서 씁니다'와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미료의 독서노트'를 운영하는 조미정 작가가 엮은 필사책이다. 10년 전 호주로 이민 가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필사로 달래기 시작했다는 그는, 지혜로운 문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쁨을 전하고자 7년 동안 쓴 독서노트에서 고요하고 다정한 문장을 골라 담았다.

〈부처님의 생애〉의 한 대목과 법상 스님의 에세이 같이 마음챙김에 도움이 되는 글귀부터 박완서, 알베르 카뮈 등 동서양 문학 대가들의 문장을 필사할 수 있다. 여기에 직접 쓴 에세이 77편을 덧붙여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상을 함께 적어 볼 수 있도록 했다.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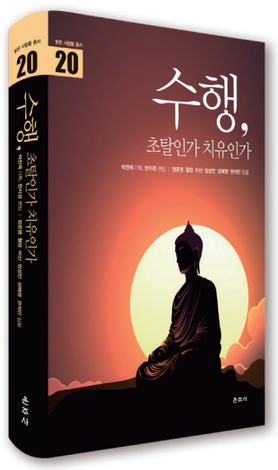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의 관점에서 초탈과 치유라는 두 개념을 탐구하여, 수행이 단순히 내적 성장이나 영적 해탈을 위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정준영·월암·미산·엄성민·성해영·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6,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